

포커스-e기업

# “비구면 렌즈 성형기 개발 로 국내 카메라·휴대폰 정밀도 높여”

(주)대호테크, 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 대통령상 수상

●●● 취재 | 박지연 기자 |

자동화기기 전문업체인 대호테크(대표·정영화, www.daehotek.co.kr)가 2008년 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에서 비구면 렌즈 성형기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는 국내 정밀측정 기술향상 및 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계량측정협회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지난 11월 12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밀기술개발 기업과 개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식을 거행했다.

제38회 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대호테크의 출품작은 ‘비구면 렌즈 성형기(모델명·LMR-3100)’로서 이 제품을 통해 카메라폰을 비롯하여 디지털카메라, Pick-up 광학계 등 비구면 유리렌즈를 생산할 수 있다.

휴대폰을 포함한 IT강국인 우리나라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점차 ‘초소형·초정밀’ 등의 제품화 추세 속에서 휴대폰에 붙어있는 카메라도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휴대폰에 장착하는 고화소카메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구면 렌즈가 필수적이다. 비구면 렌즈는 기존 구면렌즈 여러 장을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어 휴대폰을 비롯한 각종 영상기기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대호테크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이러한 비구면 렌즈 성형기를 통해서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생산업체들은 보다 정밀도가 뛰어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비구면 렌즈 성형기는 크기를 줄이고 외형을 단순화하여

가격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다수의 메가픽셀 비구면 유리 렌즈를 자동으로 연속 제조하여 품질과 수율을 극대화한 로봇시스템 설계 기술을 적용했다. 예열·성형·냉각 과정에서 렌즈의 품질을 나쁘게 하는 기계적인 문제점도 해결했다.

정동연 연구소장은 “복수의 순차 공정을 실시하는 모듈의 정렬 및 배치를 미세 조정할 수 있는 제조공정을 구현해 성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 2007년 말에 ‘비구면 유리 소형 렌즈 제조기술’로 대한민국 신기술 인증마크(NET)를 획득한 대호테크는 이러한 비구면 렌즈 성형기로 현재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8건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도 조만간 특허 출원을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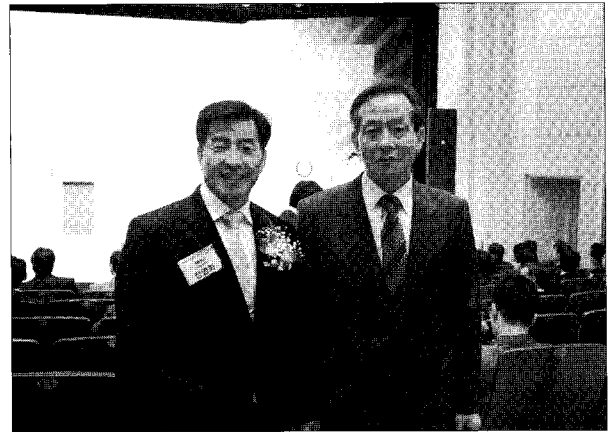
지난 1989년 창립한 대호테크가 이렇듯 한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여 년간 정영화 사장과 직원들이 묵묵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한 노력과 땀방울이 어우러진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작품(作品) 만들기’라는 사훈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회사’ 및 ‘World First, World Best, World Leader’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땀방울이 녹아있는 장비 하나 하나가 세계 최고의 예술작품이고 이 회사의 전 직원은 세계 제일의 예술가인 것이다.

정영화 사장은 “지난 2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해보면서 추구해온 것이 있다면 제품을 만들 때마다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과 그것을 만드는 인재들을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며 “무엇보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준 직원



▶대호테크의 정영화 사장



▶수상식에 앞서 기념포즈를 취한 정영화 사장과 한국광학기기협회 이탁희 부회장 (사진 오른쪽)



▶수상식장 입구에서 정동연 연구소장과 정영화 사장이 함께 포즈를 취했다.



▶지난 11월 12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있었던 정밀기술개발 기업과 개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있는 대호테크의 정영화 사장

들에게 고맙고 정밀산업기술대회 대통령상 수상이 어느 정도 보답이 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정 사장은 "산업에서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특수장비 제작업체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자유곡

면분야쪽 장비에 집중하여 전문화된 기술과 장인정신을 가지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나아가 일본, 중국 등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월드 베스트(World Best)'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회원사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광학세계'는 회원사 여러분들을 위한 정보지입니다. 광학세계의 회원사 동정 및 신상품 소개란은 회원사들의 홍보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인사 및 행사, 회사 업적 소개, 변경 사항, 신상품 출시 등 홍보 및 기사 게재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광학산업계 사랑방 구실을 하는 광학세계의 진정한 가치가 피어납니다.

- 연락처 : 광학세계 편집부
- 주 소 : (156-819) 서울시 동작구 사당3동 218번지 정보빌딩 4층
- 전 화 : (02)3481-8931
- 팩 스 : (02)3481-8669
- 이메일 : pjy@koia.or.kr